우암학원 창학 71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70 SINCE 1952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1952년 4월 20일 창사 제21753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4월 10일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퇴근길 배웅 나온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청와대서 마지막 퇴근 … 시민들 환영 행사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 성공한 전임대통령 되게 도와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9일 청와대 본관 앞에서 퇴임 연설을 통해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차기 정부는 기존 정부와는 차별화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과거 정부들의 성과를 계승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며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에 대해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하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 없이 자랑스럽다"며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 누구도 부정 못 할 빛나는 대한민국의 업적이며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도 "선진국의 방역과 의료수준을 부러워했는데 막상 위기를 겪어보니 우리가 제일 잘하는 편이었다"며 "국민도, 정부도, 대통령도 정말 고생 많았다"고 돌아봤다.

정부 출범 당시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졌을 때 국민은 가장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이라는 적법절차에 따라 정부를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며 "전 세계가 한국 국민들의 성숙함에 찬탄을 보냈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된다"며 "우리 정부가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촛불의 염원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자 동력으로 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한 희망을 키웠다"며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만은 아니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평화는 우리에게 생존의 조건이고, 번영의 조건"이라며 "남북 간에 대화 재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겠다"며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동행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석열 당선인 오늘 대통령 취임

군 통수권자로 업무 시작

오전 11시 취임식

윤석열 당선인이 10일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9일 밤 12시를 기해 군 통수권 등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인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넘겨받았다. 또 이 시각에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를 시작했고,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는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도 열렸다. 〈관련기사 3면〉

윤 당선인은 취임 당일인 10일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다. 이날 오전 10시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오전 11시께 윤 당선인이 도착하면 약 1시간 동안의 취임식 본식이 진행된다.

약 25분 분량 취임사의 주요 키워드는 자유·인권·시장·공정·연대 등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곧바로 용산 국방부 청사에 설치된 새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업무를 개시한다.

취임식 종료 후 카퍼레이드는 하지 않고 용산 집무실 인근 경로당과 어린이 공원을 찾을 예정이다. 윤 당선인의 서초동 자택 앞에서도 간단한 축하 행사가 열린다.

윤 당선인은 9일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와 영국 아만다 밀링 국무상 등을 시작으로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와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주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 등 각국 경축 사절을 잇달아 접견했다.

취임식 당일 오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리는 경축 행사에 참석하고, 이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될 외빈초청 만찬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만찬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외국 사절단을 비롯해 5대 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 등 경제5단체장도 취임식에 이어 만찬에 초청됐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취임 첫날 일정에 동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무총리가 부재하면서 윤 당선인은 우선 10일 김부겸 총리의 제청을 받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총리 권한 대행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이후 추 부총리가 총리 권한 대행으로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한 뒤 문재인 정부의 비정치인 출신 장관들 일부와 함께 이르면 12일 첫 국무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장관 이어 차관도 … 광주·전남 출신은 없다

윤 당선인, 20개 차관급 인선

국정원장 김규현 내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9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 상임이사, 2차관에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을 임명하는 등 새로운 정부 '1기 내각'의 15개 부처 20개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및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부적격' 판정으로 첫 내각 반쪽 출범이 현실화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직전 차관급 인사를 먼저 단행해 일단 '차관 내각 체제'를 갖춘 것이다.

이번 차관 인사에서 전북 출신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었으며 광주·전남 출신은 단 한명도 없었다. 광주·전남지역 인재들이 대거 발탁됐던 문재인 정부 시절 차관 인사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관 인선과 관련,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당선인은 정부 운영에 어떤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취임 즉시 관련 내용에 서명하고 발령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으로 김규현(69)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내정, 10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대학 재학 중인 1980년 외무고시(14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와 공사 등을 거친 정통 북미 라인이다.

김대중(DJ)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됐으며, 노무현 정부 때는 국방부 국제협력관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간 국방 현안을 다룬 경력도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요직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월호 사고와 관련,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처벌받지는 않았다.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우리 가족의 5·18, 그리고 나의 오월 ▶6면
굿모닝 예향 - 위로하는 그림책 ▶18·19면
나달·조코비치 꺾은 10대 알카라스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SAMSUNG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국민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삼성이 함께 하겠습니다